

대전 사회복지 60년의 회고와 미래과제



류진석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서론

2009년은 대전이 1949년 8월 15일 시로 승격되어 '시 승격 60주년', 1989년 1월 1일 대전직할시(1995년 대전광역시로 명칭변경)로 승격되어 '광역시 승격 20주년'이 되는 매우 뜻 깊은 해이다. 대전시의 시 승격 60주년을 맞이하여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의 발전방향을 점검한다는 것은 대전의 미래상과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찾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전부터 대전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전통적인 교통거점도시이며, 엑스포의 개최, 대덕연구단지의 조성 등으로 과학도시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으며, 빠르게 성장한 대표적인 도시라 할 수 있다. 이제 대전은 그동안 치중했던 양적 성장보다는 도시발전의 질적 전환을 통해 미래의 중추도시로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하고 사람이 살고 싶은 도시로의 발전은 그동안 지배적이었던 성장·개발중심적인 발전패러다임으로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전 발전의 새로운 도약 또는 도시발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과거를 돌아보고 대전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도시의 미래상을 논의할 때 외형적인 환경 변화 못지않게 도시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이 이루어졌지만, 대부분의 복지업무는 중앙정부가

수립한 정책을 중심으로 실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사업수행은 지방재정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개프로젝트 등 대전형 복지모델을 실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보다 진전된 지역중심형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삶의 터전으로서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도시로서 대전을 발전시키기 위한 복지영역의 미래과제는 무언인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대전 사회복지 60년의 회고와 미래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대전 사회복지 60년의 회고를 해방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여 대전 사회복지의 발달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다음으로 독자적인 대전형 복지모델로 분류할 수 있는 복지만두레와 무지개프로젝트에 알아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는 선진복지도시로서 위상정립을 위한 대전 사회복지의 미래과제를 고찰하기로 한다.

2. 대전 사회복지의 발달과정 : 60년의 회고

대전 사회복지의 발달과정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왜냐하면대전시의 독자적인 복지행정을 시행한 경험이 일천하며, 대부분 중앙정부의 정책수립을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 사회복지의 발달과정을 어떻게 고찰할 것인가는 시기구분의 문제, 논의의 영역설정의 문제 등으로 다양한 입장이 대별될 수 있다. 대전 사회복지의 발달과정은 각 영역별 발달수준의 차이로 시기구분도 용이하지 않고 세부내용도 다양하게 나타나 특정시기에 따라 일관되게 정리하기란 쉽지 않다. 여기에서는 대전 사회복지로 특징되는 내용을 빈곤정책, 아동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지역복지 등을 중심으로 크게 3시기로 구분하여 개략적으로 언급하기로 한다.*

* 1990년대까지의 주요 내용은 대전 사회복지협의회(2001)를 주로 참조하였다.

표 1 대전 사회복지의 발달 개요

구분	해방이후-1970년대	1980-1990년대	2000년대 이후-현재
빈곤정책	· 응급구호 및 전쟁복구 · 생활보호법 제정(1961)	· 생활보호법 전면개정(1982)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2000)
아동복지	· 전쟁고아 및 요보호 아동 수용 · 성화원(1951), 성우보육원(1952) 등	· 아동자립생활지원 -인애자립생활지원관(1991)	· 대전아동학대예방센터(2000) · 지역아동센터의 법적 지원(2004)
노인복지	· 성애양로원(1958)	· 임마누엘양로원(1985) · 원광수양원(1992) · 서구노인복지관(1997) · 다비다의 집(1998) 등	· 노인복지시설 확충 · 노인일자리 창출 등
여성복지	· 루시모자원(1954)	· 윤락여성직업재활시설 · 여성회관, 여성의 집 등	· 가정폭력상담소 · 여성인력개발
장애인복지	· 충남맹인학원(1953, 대전맹학교) · 충남농화원(1963, 정화원) 등	· 농아인협회 설립(1981) ·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 대전장애인지업전문학교(2000) ·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지역복지 등	· 대전기독교사회관(1953)	· 지역사회복지관의 신설 및 확충 - 중촌사회복지관(1991) 등 · 충남사회복지협의회 발족(1985) · 대전사회복지협의회 분리 독립(1989) ·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1998)	· 지역복지관의 신설 - 대덕종합사회복지관(2001) 등 · 복지만두레(2004) · 무지개프로젝트(2006)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2007)

* 자료: 대전사회복지협의회(2001), 대전광역시, 시장백서(2005, 2007)를 참조하여 재정리.

2-1 해방이후-1970년대: 응급구호시대 및 지역복지의 태동

해방 이후 1950년대는 정치, 경제사회적 혼란기로서 실업과 절대빈곤이 만연된 상황이었으며, 전재민과 피난민을 위한 최소한의 응급구호에 제한되었다. 특히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사회경제적 상황은 매우 피폐하였으며, 그 결과 복지정책도 난민정착사업, 주택사업, 공적구호사업, 일시응급구호사업에 치중하였다.

한편, 미국 등 외국의 원조활동과 민간 사회복지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이 시기부터이다. 유엔구호계획에 의하여 많은 외국구호물자가 도입되었으며, 외국 민간 원조기관의 구제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시설수용을 요구하는 요구호자가 증가하여 육아시설, 양로시설, 모자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이 증가하여 민간 사회복지활동의 주류를 형성하였다.

이 시기는 대전 지역복지의 태동기로서 요보호아동, 장애인,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설립하여 출발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요보호아동을 수용하기 위해 성우보육원, 성화원, 애육원, 인애원, 시온보육원 등이 설립되었으며, 1953년에 충남맹인학원(현 대전맹학교), 1963년에 충남농화원(현 정화원) 등 장애인 복지시설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1953년에 전쟁미망인 가족을 돕기 위한 모자보호시설로 루시모자원이 설립되어 활

동하였다. 노인복지시설로는 성애양로원이 1951년이 개원한 후 1958년에 후생시설허가를 받았다.

2-2 1980년대-1990년대 : 지역복지의 형성 및 확대

이 시기는 1960-70년의 국가주도의 산업화에 따라 절대빈곤이 감소하였지만, 소득 격차, 장애인 차별,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인부양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제기되어 복지수요가 증대되었다. 그 결과 국가의 복지정책이 확대된 시기로서 과거보다는 진일보된 지역복지가 전개되었다. 1982년 생활보호법의 개정으로 자활보호대상자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아동복지의 경우에 과거보다 아동보호수준이 확대되었으며 시설 아동퇴소자를 위한 아동자립생활지원시설로서 인애자립생활지원관이 1991년에 개원하는 등 많은 변화를 보였다.

노인복지의 경우에는 1985년에 대전지역의 두 번째 노인복지시설인 임마누엘양로원이 설립되었으며, 그 이후 1990년대에 원광수양원(1992), 대전노인요양원(1992), 다비다의 집(1998), 선우치매센터(1999) 등 다양한 노인복지시설이 확충되었다. 장애인복지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내실화, 성세재활자립원(1987, 현 성세자립원) 등 직업재활시설의 설립, 대전 농아인협회(1981), 대전시각장애인연합회(1988)를 비롯한 장애인단체의 설립 그리고 대전시립장애인복지관(1988)이 건립되었다. 1990년대에는 장애인 관련단체의 다양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의 확대, 장애인 고용지원기관의 설립 등 새로운 장애인 복지시설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복지시설로서 한뫼요양원(1992), 평강의 집(1996), 한뜻마을(1996) 등과 특수교육기관인 대전해광학교(1995)도 설립되었다. 또한 여성회관(1993), 구세군 대전여성의 집(1995), 가톨릭가족폭력상담소(1996, 1998 개칭) 등 여성복지시설도 확충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 특징적인 것은 지역사회복지관의 설립, 대전사회복지협의회 및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립되어 활동하는 등 지역복지의 확대 및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1991년 중촌사회복지관을 시작으로 중리종합사회복지관, 산내종합사회복지관, 관암사회복지관 등이 개관하였으며, 그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되어 2009년에는 19개소가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체로서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가 1985년에 충남사회복지협의회로 발족되어 활동하다가 1989년에 대전직할시 사회복지협의회로 분리, 독립하였으며, 1997년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법인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1998년에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립되어 기부문화의 확산 및 민간복지 자원동원에 크게 기여하였다.

2-3 2000년대-현재: 지역복지의 발전 및 대전형 복지모델 구축

이 시기에는 대전 지역복지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독자적인 대전형 복지를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 10월에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빈곤정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지역에서는 자활센터를 설립하여 자활사업의 전개 등 빈곤문제에 대한 대응을 본격적으로 수행하였다. 아동복지사업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아동학대예방센터의 개소(2000), 지역아동센터의 확충 등이 이루어졌다. 과거의 공부방 형태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였으나 2004년부터 아동복지법상 복지시설로 분류되어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대전에서도 지역아동센터로 변경하거나 새롭게 신설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2008)으로 노인복지요양시설이 급속히 확충되었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을 강화하기 위해 2000년에 장애인직업전문학교가 설립되는 등 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 가정폭력상담의 강화 및 여성인력의 개발 등 여성복지에서도 많은 변화를 보였으며, 사회복지관의 평가 및 기능 확대 등 지역복지의 내실화를 추진하였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 대전 지역복지의 변화로는 대전형 복지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2004년에 시행된 복지만두레와 2006년에 시행된 무지개프로젝트는 중앙정부의 정책수립과는 별도로 대전의 독자적인 모델로서, 지역복지의 역량강화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2007년부터 시행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중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 발굴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3. 대전형 복지모델의 전개: ‘복지만두레’와 ‘무지개 프로젝트’

3-1 복지만두레 : 지역복지공동체를 위한 주민참여복지네트워크

2004년에 시행된 ‘복지만두레’는 대전형 복지네트워크로서 나눔의 실천을 조직화한 것이다. 복지만두레란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복지조직체로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계층들을 주민 자발적

으로 참여하여 지역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주민참여복지네트워크를 의미한다(대전광역시, 2005).

복지만두레의 추진과정을 보면, 2003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부터 대전시 80개동별 복지만두레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2004년 6월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개인을 비롯하여 기관, 단체와의 참여협약을 통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였다. 2006년 9월부터 그동안 복지만두레의 관 주도 운영방식에 대한 논란에 따라 민간주도 자율운영방식으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다.

복지만두레의 조직은 행정동 단위로 조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 2개동 이상을 연계한 권역별로 조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복지만두레의 사업내용을 보면, 첫째, 복지수요자에 대한 결연 및 후원을 통한 지원, 둘째 복지수요자에 대한 정신적 지지 및 보건의료 지원, 셋째, 복지공급자와 복지수요자의 발굴 및 관리 등이다. 특히 기본적인 복지욕구충족을 위해 복지수요자에 대한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다수의 복지공급자간 중첩결연을 통해 네트워크 형성 및 관리에 중점을 두어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다(<http://mandure.daejeon.go.kr/city/index.jsp>).

그러나 복지만두레에 대한 대전시의 정책의지가 시행초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약화되었으며, 지역특성에 맞게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민간주도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참여복지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한 역할 및 기능이 새롭게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3-2 희망기획 무지개프로젝트 : 빈곤층 밀집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및 복지지원정책

대전지역의 영구임대아파트·달동네를 비롯한 취약동네의 슬럼화와 사회적 소외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 9월에 ‘희망기획 무지개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시행하고 있다. 무지개 프로젝트란 빈곤밀집지역의 특성인 빈곤상태의 지속, 지역슬럼화, 사회적 소외현상의 심화 등 지역공동체가 붕괴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탈빈곤프로그램을 전개하여 궁극적으로 함께 어울려 사는 건강한 동네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무지개 프로젝트는 빈곤밀집지역에 대해 개발과 성장중심적인 도시재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주거환경개선, 편의시설확충, 교육여건 개선,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들고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무지개 프로젝트는 2006년부터 시작한 1단계 관암1, 2동지역에 이어 2단계 지역으로 서구 월평2동, 대덕구 범동지역을 선정하여 사업진행이 이루어졌으며, 2010

년까지 총84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1, 2단계 사업으로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현재 동구 대동, 중구 문창·부사동을 중심으로 3단계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무지개 프로젝트의 추진단계별 지역 및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따라서 무지개 프로젝트는 첫째, 기존 빈곤밀집지역의 원주민을 배제하는 획일적인 도시재개발방식으로 접근하는 것과는 달리, 원주민이 정주(定住)할 수 있도록 환경을 재정비하여 살고 싶은 삶터와 동네를 조성하기 위한 정주형 도시재생프로그램이다. 둘째, 빈곤밀집지역의 특성으로 언급되고 있는 빈곤상태의 지속 및 대물림을 해소하기 위해 자활의지의 고취 등 빈곤퇴치를 위한 복지지원프로그램이다. 셋째, 지역사회의 변화 및 지역복지공동체의 복원을 위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미를 갖는 무지개프로젝트는 정주형 도시재생적 관점과 지역구성원의 참여와 탈빈곤 전략이 결합된 ‘지역사회변화’의 대전형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무지개 프로젝트의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었다. 예컨대 무지개 프로젝트의 시행초기에는 환경개선에 치중한 전시성 사업추진, 주민참여보다는 행정주도적인 사업추진, 기존 프로그램의 확대 등 지역공간변화에 초점을 둔 반면에, 지역구성원의 변화를 통한 지역복지공동체 구축에는 한계가 있었다.

표 2 대전시 무지개프로젝트의 추진단계별 지역 및 사업개요

단계	지역별	사업건수	투자사업비(백만원)			2009 추진 주요사업
			계	2008까지	2009이후	
1단계 (2006-2010)	동구 판암1,2동	〈32개 사업〉 · 완료 25건 · 추진중 7건	41,071	17,244	23,827	· 무지개 도서관 설치 · 동신중 잔디구장 설치 · 장애인 자활센터 건립 등
2단계 (2007-2010)	서구 월평2동	〈19개 사업〉 · 완료 15건 · 추진중4건	3,311	2,708	603	· 남산중 시설개선, 공원화 사업 · 푸드마켓 설치운영 · 자활지원사업 등
	대덕구 법1,2동	〈33개 사업〉 · 완료 27건 · 추진중6건	27,844	19,247	8,597	· 노후 공동주택단지 개선 · 법동 일원 도로 정비 ·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3단계 (2009-2011)	동구 대동	〈25개 사업〉	6,674	-	6,674	· 대동복지센터건립 · 주민참여 정주환경 개선 · 푸드마켓설치운영 등
	중구 문창 부사동	〈31개 사업〉	19,890	-	19,890	· 부사복지센터건립 · 문창·부사지역 환경개선 · 경로당 신축 및 지역복지프로 그램 강화 등

* 자료: 대전광역시, 희망기획 무지개프로젝트 추진상황과 2009 계획,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개 프로젝트는 대전형 복지모델로서 주목을 받고 있고, 앞으로 4단계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따라서 기존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에 따른 사업효과성 제고, 지역주민참여의 확대를 통한 내부구성원의 역량강화 등 지속적인 발전을 통하여 새로운 지역복지모델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정주형 도시재생적 관점과 지역주민의 참여와 변화를 통하여 지역공간과 지역구성원이 상생하고 상부상조하는 지역공동체복원으로서 무지개프로젝트는 그 내용이 보다 내실화되고 진화될 필요가 있다.

3-3 지역중심형 복지사업의 발굴과 전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2007년 시행시의 명칭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이며, 현재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변경되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 사회가 지역별 특성과 주민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개발·제공토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또한 이 사업의 목적은 시장 형성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데 있다. 그리고 인적자본 형성, 건강투자, 고령 근로 촉진 등 사회투자적 성격 사업을 집중 지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을 확충하는데 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이나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직접 발굴, 기획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심사하여 선정·지원·평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복지공급능력이나 지자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사업의 신청 및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지역중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발굴하는 지역복지의 역량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전시의 경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2007년에 13개 사업이 선정되어 실시되었으며, 2008년에도 계속해서 실시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2009년부터는 사업이 일부 조정되거나 새로운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전개하였다. 2009년 현재 대전시의 경우에는 11개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표 3>을 보면, 전국적인 표준사업으로서 지자체의 선택형인 아동인지 능력향상, 아동건강관리사업은 계속하여 시행하고 있고, 지역개발형 사업으로서 9개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특히 2009년 신규 사업으로서 노인건강증진과 관련된 '사랑나눔 안마치료서비스',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클래식 잠재력 향상 프로그램'을 5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성과 및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다. 즉, 사회서비스의 일자리 제공확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개발, 서비스 수요자의 권리확대, 전자바우처방식에 의한 지원방식의 변화와 관리의 투명화, 행정효율성의 제고 등을 성과로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 못지않게 사업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으로 서비스 공급기관의 부족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의 제한, 서비스 제공기관의 업무과중, 예산배정방식이나 서비스 선정요건 등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의 제한, 일자리 질적 수준의 문제, 서비스의 품질제고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역사회의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개발과 발굴, 복지수요자의 권리확대, 복지공급기관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보다 지역중심적인 사업으로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표 3 대전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현황 : 2009년

구분	사업명	서비스 내용
계	10개	
선택형	아동인지 능력 향상	· 영유아 발달 초부터 아동과 부모 독서지도, 정보제공 지원 - 독서 도우미 1인, 주1회(10~20분) 방문
	아동건강관리	· 비만 아동건강관리 프로그램 - 비만지수 20%이상, - 건강·영양관리 교육, 정보제공 - 운동처방 및 지도
지역개발형	장애인 성 재활 통합지원	· 성 재활 교육과 상담 - 주1회 2시간, 성 재활 및 성교육 (최대4개월)
	정신장애인토털케어	· 정신건강 재활훈련: 가족상담 주1회 1시간
	취약계층 방역소독 지원	· 소독방역 / 년 6회 :살균, 살충, 구서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정서행동 통합치료 서비스)	· 인지행동· 언어· 놀이· 미술· 음악치료, 부모상담 (물리, 작업치료 제외)
	나이아! 가래! 프로젝트	· 치매 및 우울 사전예방 교육 · 두뇌, 모듬, 집중이완, 인지건강
	사랑나눔 안마치료 서비스	· 노인: 전신안마, 마사지, 운동요법 · 장애인: 체형교정, 자극요법 · 기타질환: 운동 및 전신안마 등
	클래식 잠재력 향상 서비스	· 정서순화 프로그램 · 음악실기교육(4개 관현악 중 택1) · 분기별 향상음악회 등
동구	새터민정신건강지원	· 심리상담, 임상사례관리, 정신건강 · 예방교육프로그램제공
유성구	결혼 이민자가족 지원	· 결혼이민자여성대상: 한국어· 문화이해· 정보화 일상생활 교육

* 자료: 대전광역시 내부자료(2009)

4. 대전 사회복지의 미래과제

시 승격 60년의 역사를 지닌 대전은 발전가능성이 높은 도시로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전시에서는 이에 부응하기 위해 「창조도시 대전: 비전 2030」을 통해 미래의 대전모습을 제시하였다. 여기에 나타난 대전 사회복지의 미래를 살펴보면, '함께 나누는 복지도시'로서 통합적 복지체계 구축, 복지수요별 맞춤형 정책수립, 시민참여시스템 구축이라는 전략 하에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전략인 통합적 복지체계구축에서 추진할 세부과제로 복지서비스 운영체계 정비, 도시융합형 복지환경 조성이다. 두 번째 전략인 복지수요별 맞춤형 정책수립의 세부과제로는 여성의 창조역량 강화와 활용, 다양한 가족의 행복한 삶 추구, 어린이와 노인의 삶의 질 향상, 장애인 및 소수자의 활동과 자활보장 등이다. 세 번째 전략으로서 시민참여시스템의 세부추진과제로는 시민참여 네트워크 강화, 다양한 참여프로그램 구축 등이다(대전광역시, 2009).

이러한 비전과 전략 그리고 세부과제를 기초로 대전 사회복지의 미래과제와 도시의 미래상을 종합하면,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으로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복지수요에 따른 욕구별 지원시스템을 체계화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 지역복지공동체를 위한 참여와 나눔의 일상화를 통해 꿈과 희망의 도시, 안심하고 살고 싶은 도시,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역동적인 도시, 참여와 나눔의 도시로서 대전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추진해야할 전략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1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 해소와 생활밀착형 복지지원망 구축 : 꿈과 희망의 도시로서의 대전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을 가진 사람에게 근로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저생활보장을 목표로 실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정책으로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지만,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의 존속, 보장수준의 문제, 자립가능성의 문제 등으로 운영상의 개선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는 지역차원에서 해소될 수 없으며, 중앙정부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결해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양극화의 심화, 빈곤의 대물림 현상을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사각지대에 대해 대전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할 것이다. 빈곤층의 경제적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독자적이고 전략적인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할 것이다. 실질적인 생활보장이 가능하도록 생활밀착형

복지지원망을 구축하고, 빈곤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해 빈곤아동에 대한 교육투자의 확대, 무지개프로젝트와 같이 기존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독자적인 지역복지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4-2 사회복지서비스의 인프라 확충과 복지수요중심의 대응체계 강화 : 안심하고 살고 싶은 도시로서의 대전

복지체감도 및 신뢰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다문화 가정 등 복지수요자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확대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복지인프라 수준으로는 복지 체감도를 높이거나 복지수요중심의 대응체계를 확립하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예를 들어 재가노인을 위한 재가서비스가 미비, 재가 및 시설노인을 위한 사례관리시스템이 확립되지 않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의 전문프로그램 및 노인보건의료서비스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장애인 고용확대가 저조하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기본적인 인프라도 구축되지 않은 실정이다. 더구나 현재 제공되고 있는 장애수당의 수준은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크게 미흡하여 급여수준의 현실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아동보육과 관련된 일시보호시설이나 야간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수보육시설 확충 등 보육서비스에 대한 질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복지수요중심의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다문화 가정 등 복지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및 시설 확충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그리고 가족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족서비스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가족교육·상담, 가족문화 운동 등을 통해 가족 친화적 문화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성별 영향평가의 적용범위 및 대상 확대,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양성평등기반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할 것이다.

4-3 사회변화에 능동적인 복지기반 조성 : 역동적인 도시로서의 대전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복지기반을 조성해야할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진전은 앞으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양산할 것이다.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 및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결혼연령 상승, 자녀 출산 기피 등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에 기인하며 자녀의 양육부담,

사교육비의 증대 등으로 인하여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세대는 소득과 건강상태의 불안으로 삶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 사회적으로 노인부양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단기적인 대응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정책효과 역시 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저출산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 우대정책을 실시해야한다. 또한 모성 및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영양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임시술비용지원제도의 도입 등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해야한다.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기반 구축으로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한다. 노후에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여가·문화공간을 조성해야한다. 그리고 어른 공경과 효 문화를 확산하여 노인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노인요양시설의 인프라 확충 및 제반여건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4-4 지역복지의 역량강화와 나눔 문화의 확산 : 참여와 나눔의 도시로서 대전

대전 사회복지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의 확충 못지않게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전달체계의 구축과 전문인력의 업무역량과도 직결된다. 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정책집행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과 정책모니터링 및 평가체계를 확립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현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인력의 업무역량의 강화와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 사회복지 시설 및 관련기관 종사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신규 및 보수교육을 강화해야하며, 국내외 선진복지시설 견학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도모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근무여건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지역복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민관협력을 강화해야할 것이며, 자원봉사의 활성화 및 기부문화에 대한 제도적 지원 등 참여와 나눔 문화의 확산을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를 유도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대전광역시. 1996, 2008. 성장통계.

대전광역시. 1999. 통계로 본 대전 50년.

대전광역시. 2005, 2007. 시정백서.

대전광역시. 2009.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상황.

대전광역시. 2009. 창조도시 대전: 비전 2030.

대전광역시. 2009. 희망기획 무지개프로젝트 추진상황과 2009 계획.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2001. 대전사회복지 50년사.

<http://mandure.daejeon.go.kr/city/index.jsp>